

7월 3일

[USD/KRW]

USD/KRW 예상 : 1381~1391원
NDF 증가 : 1384.00 (Swap point : -2.40, 1386.40원)

- (금일 전망) 금일 달러/원 환율은 미 연준 인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하락할 전망. 전일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경로 회복에 대한 발언과 시카고 연은 총재의 금리인하 필요성 시사 발언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은 금일 달러/원 환율 하락 견인할 예상. 프랑스 극우 정당의 단독 과반 확보를 막기 위한 좌파 진영 연합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축소 또한 환율 하락 요인. 다만, 금일 발표될 일본 등 주요국 PMI 지표가 기존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환율 하단 지지 요소. 이에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여 1380원대 초중반 움직임 전망
- (전일 동향) 2일 달러/원 환율은 전장 대비 0.7원 상승한 1384.5원 출발. 트럼프 리스크 등 반영하며 1388.2원 증가 기록(15:30). 파월 의장 비둘기파적 발언에 상승폭 축소하며 전일 대비 7.6원 오른 1386.9원에 마감

| 달러/원 환율 상승 요인 | 달러/원 환율 하락 요인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 경계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 • 프랑스 총선 리스크 감소 |

[Global Market]

EUR/USD 예상 : 1.0710~1.0810
USD/JPY 예상 : 161.10~162.10

- (USD Index) 글로벌 금융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과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,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.11 하락한 105.70을 기록
- (EUR) 유로화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(RN)의 단독 과반 확보를 막기 위한 프랑스 중도, 좌파 진영의 연합 움직임에 따라 정치적 리스크 축소되며 소폭 강세, 유로/달러 환율은 0.0005달러 상승한 1.0746 달러로 마감
- (JPY) 엔화는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영역에 있던 일본 가치주 상승 움직임과 간밤 미 국채 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소폭 강세. 달러/엔 환율은 0.03엔 하락한 161.44엔으로 마감

| 구분 | 증가(전일비) | 재정환율(KRW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USD Index | 105.70 (-0.11) | |
| EUR/USD | 1.0746 (+0.0005) | 1491.65 (+10.25) |
| USD/JPY | 161.44 (-0.03) | 859.90 (+5.66) |
| USD/CNH | 7.3072 (+0.0018) | 189.98 (+1.18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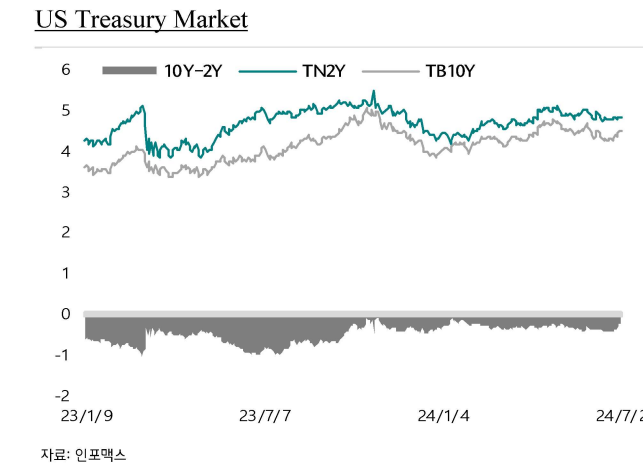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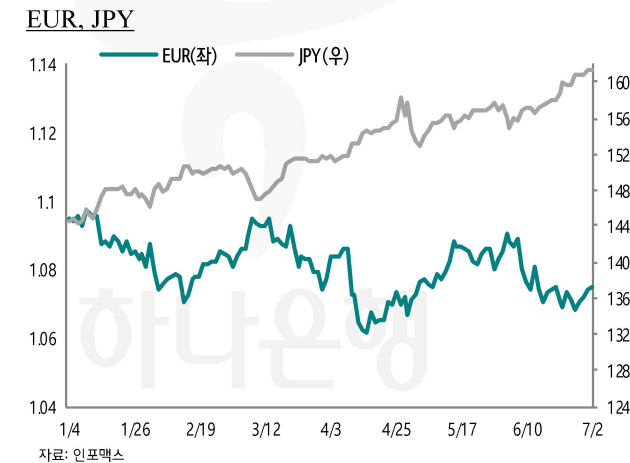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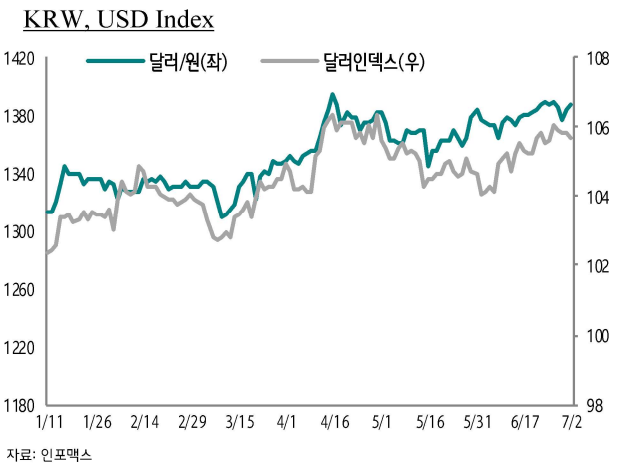
[Macro Analysis]

미국채 장단기 Spread(10Y-2Y) : -31.70bp (전일대비 -1.50)

- 글로벌 경제는 미 연준 인사의 발언에 주목. 전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ECB 포럼에서 최근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로 되돌리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발언.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또한 수개월 내 금리인하 필요성을 시사. 한편 미 5월 JOLTS 구인인원은 814만명으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으나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. 미 국채금리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최근 급등에 대한 조정 영향으로 2년물 수익률은 1.40bp 하락한 4.754%, 10년물 수익률은 2.90bp 하락한 4.437%를 기록. 뉴욕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감 등 반영하며 다우지수 +0.41%, 나스닥 +0.84%, S&P +0.62%로 상승 마감. 국제 유가는 전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등에 소폭 하락

| 시간 | 내용 | 예상 | 이전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09:30 | 일본 6월 서비스업 PMI | 49.8 | 53.8 |
| 10:45 |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| 53.4 | 54.0 |
| 17:00 | 유로존 6월 합성 PMI | 50.8 | 52.2 |
| 23:00 |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PMI | 52.7 | 53.8 |

미 연준 인사 비둘기파적 발언에 따른 소폭 하락



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,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